

## 녹취록 개요

녹 음 파 일	7. 220901 22-26 서현역 성폭행 관련5
녹 음 일 시	2022년 9월 1일 오후 22시 26분 경
녹 음 형 태	전화 통화 녹음
쪽 수	표지 외 14쪽
대 화 자	여자_1_유혜원(고소인) 남자 1_최준혁(피고소인)


붙임과 같이 녹취록을 제출합니다.

- 붙임 1) 녹취개요 1부  
2) 녹취록(대화내용) 1부  
3) 원본녹음 CD 1매  
4) 사실확인증명서 1부 끝.

십 인 의 속 기 녹 취 사 무 소 공 증 필



## 비밀청취 엄정준수문서

담당 속기사	손 효 진
비고	

※ 내용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,  
일부 불필요한 중복 어구 및 삽삭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## 『 녹 취 록 』

- 파일명 : 7. 220901 22-26 서현역 성폭행 관련5\_(17분 08초)
- 녹음일시 : 2022년 9월 1일 22시 26분 경
- 유혜원 : 그러면 그날 어떻게 된 건데, 그러면?
- 최준혁 : 그러니까 혜원아,
- 유혜원 : 너 말대로 모든 우리가 했던 관계와 강압적인 건 아니었어.
- 최준혁 : 근데 혜원아, 그러니까 나도 그날, 그런데... 그날 ‘강간을 했다.’ 막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나도 좀...  
혜원아, 그러니까 뭐...
- 유혜원 : 그러면, (탄식)
- 최준혁 : 그러니까 혜원이 너가,
- 유혜원 : 그럼 네가 말해봐. 그날 있었던 상황들. 근데 진짜 양심적으로 말해 봐. 네가 다 말하고 나면 내가 한 번 내 입장에서 그럼 얘기할게.
- 최준혁 : 어? 혜원아 근데 내가 그거를 정말 하나는 말하고 싶은 게 네

가 그거를 ‘ 내가 그날 너를 강간했다...’ 그렇게 말하면 나도  
그거에 대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, 혜원아.

- 유혜원 : 왜 안돼?
- 최준혁 :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네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한 거  
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고, 그리고 조금  
하기 싫다고 했는데도 어느 정도 하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말  
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를 강간을 했다. 그렇게 말을 하  
면...
- 유혜원 : 그러니까 그날...  
네가 방금 얘기했잖아. “ 하기 싫다고 하는데 했다.” 라고
- 최준혁 : 그래서 혜원아, 네가 계속 거듭 얘기해서 내가 멈추고 안 했잖  
아. 혜원아.
- 유혜원 : 언제 멈췄어, 너?
- 최준혁 : 중간에 멈췄잖아, 혜원아.
- 유혜원 : 그러니까 그 중간이 어디야.
- 최준혁 : 사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, 하다가 너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  
서 내가 안 하고 멈추고 끝내고,
- 유혜원 : 내 팔이랑 다리가 자유롭게 그때 움직일 수 있었어? 응?
- 최준혁 : 혜원아, 나한테 그때 너를 강간을 한 게 맞다, 그런 말을 듣고  
싶은 거야 지금?
- 유혜원 : 아니 이미 네가 했잖아, 그거는. ‘ 강간’ 이라는 단어만 쓰지  
않았다 뿐이지.
- 최준혁 : 혜원아 그러고 나서 우리가 3년을 더 만났는데, 2~3년을 더 만

났는데 혜원아?

○ 유혜원 : (한숨) 그러니까 너 끝까지 그때 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사과할 기회 주는데도 너 끝까지 안 하는 거잖아.

○ 최준혁 : (정적)

○ 유혜원 : 내가 말했지 그동안 나를 너무 못 지켰다고. 나는 그게 남자친구니까 그리고 네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? 그 일 있고 나서 네가 내가 너무 좋아서 주체를 못해서 그랬다며. 맞아, 아니야? 이렇게 사과하지 않았어, 그때?

○ 최준혁 : 근데 혜원아, 그거를 강간이고 성폭행이라고 (생각해?)

○ 유혜원 : (강간이고 성폭행이라고) 생각해.

근데 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, 그러면?

○ 최준혁 : (침묵)

○ 유혜원 : 너 그 상담 받으러 가는 날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어봐 봐, 한번 선생님한테. 그리고 너는 이게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. ‘성폭행’ 이라고. 그리고 한번 물어봐 봐 그거에 대해서, 응?

○ 최준혁 : 알겠어. 혜원아.

○ 유혜원 : 응. 그리고 제3자가 하는 얘기 한 번 들어봐봐. 준혁아, 근데 그날 후...

그날 네가 사정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그전까지 다 했잖아, 아니야? 너 내 몸에 삽입 안 했어, 그러면 그날?

○ 최준혁 : 근데 혜원아 그거를 강간이라고 하는 거는...

○ 유혜원 : 아니 그리고 네가 내 팔이랑 잡고 있었지. 내가 마음대로 못

움직일게. 너 나 팔 이렇게 해서 너 오른쪽 팔로 내 왼쪽 팔  
누르고 왼쪽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있었잖아 나 아직도 그런 것  
도 다 기억나. 너는 기억 안 나, 준혁아?

- 최준혁 : 아니야, 혜원아. 그냥 그날 기억나 나도.
- 유혜원 : 그렇지? 그리고 후...
- 최준혁 : 근데 혜원아, 후아...
- 유혜원 : 아니, 근데 어떻게 너 진짜 끝까지 이래?
- 최준혁 : 아니 혜원이 너도 지금...
- 유혜원 : 준혁아 근데 이거를 풀어서 말해봐. 그러면 네가 내 손을 그렇게 잡고 있었고
- 최준혁 : 아니 혜원아, 그런데 혜원아,
- 유혜원 : 그리고 너가 사정을 하지 않...
- 최준혁 : 내가 너한테 잘못하고 나한테 화가 나는 부분은 알겠는데,
- 유혜원 : 준혁아, 이건 아니...
- 최준혁 : 그렇게 2-3년 전에 했던 그런 것까지 뭐 ‘강간이니...’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야, 혜원아, 그런데?
- 유혜원 : 나도 너무 충격적이야. 근데 너 2-3년 전 일이라 그러면 이게 괜찮은 일이 돼?
- 최준혁 : 아니, 괜찮다는 게 아니라 혜원아,
- 유혜원 : 준혁아, 그러면 네가 그때 했던 성매매도 괜찮은 일이야?
- 최준혁 : 아니, 혜원아 그건 내가 잘못 한...
- 유혜원 : 야, 시시비비는 가려야 될 거 아니야.

낙준아, 그때는 우리가 한참 사귀고 있을 때였잖아. 그래서 그

런 일이 있었는데도 나는 그때도... 내가 솔직히 이번에 성매매 터지기 전까지 네 말 다 믿어줬잖아. 너 이상하게 연락 안 되고 그럴 때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고 너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들도 내가 다 믿어줬잖아. 그래서 그때도 그냥 “네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.” 이래서 그냥 믿어줬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선생님이 이거는 분명한 성폭행이래. 그러면 나 너한테 지금이라도 이게 그런 잘못된 행동이었던 거 알게 됐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아? 나는 이게 계속 꿈에 나타나는데? 근데 너 지금 다 지난 일이고 그 뒤에 또 사귀었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어?

- 최준혁 : 근데 혜원 정말 내가...
- 유혜원 : 그러니까 너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.
- 최준혁 : 그런데 혜원이 너는 그때,
- 유혜원 : 그러면 무조건... 잠깐만, 너 무조건 이거 강간이라고 하면 나 너무 화나 이 말 말고 그거를 풀어서 얘기를 해 봐봐.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.
- 최준혁 : 그러면 그게 뭔가 내가 내 욕구만을 해소하고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. 정말 욕구만 내가 욕구에만 가득 차서 내 본능에만 따라가지고.
- 유혜원 : 그러면 왜 그랬는데?
- 최준혁 : 근데 혜원아 정말 내가 너랑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내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렇게 관계를 했던 건 아니야, 나 너

랑 관계를 할 때 혜원아.

- 유혜원 : 아니 그러면 그날 그 행동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면 뭐였어?  
내가 생각하는 강간이랑 네가 생각하는 강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네 입장에서 한 번 말해보라고. 네가 네 입장에서 얘기 끝나면 나도 내 상황으로 얘기해볼게. 그러면.
- 최준혁 : 정말 내가 뭔가 너를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너랑 얘기 나눴던 것처럼 뭔가 상대방을 ‘대상’으로만 생각하고 ‘도구’로만 생각하고 내 욕구만 채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혜원아, 정말 혜원이 너 했던 내 모든 게 혜원이 너를 기만하고 속이고 그리고 뭔가 너를 그냥 내 성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혜원아 내가 너랑 관계를 맺었던 그런 게 아니야. 혜원아 그날도 그렇고 혜원아.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말 내 그냥 욕구에만 충실해가지고...
- 유혜원 : 아니, 준혁아 지금 감정적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네가 기억하는 거 그대로 얘기해보라고. 그러면 감정 빼고,
- 최준혁 : 그래서 혜원아 내가 방금 말했잖아. 그렇게 혜원이 너한테 하려고 하다가 혜원이 너가 “싫다”고 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하던 행동을 그만두고 멈췄잖아, 혜원아.
- 유혜원 : 네가 하던 행동이 뭔데 그래서?
- 최준혁 : 그러니까 너랑 성관계를 맺다가 멈추고 그만했잖아, 혜원아.
- 유혜원 : 그러니까 너가... 후... 그 앞의 상황은 뭐 기억 안 나, 그러면?  
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? 그때 너 나 어떻게



하고 있었는데?

- 최준혁 : (정적)
- 유혜원 : 내 팔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 준혁아?
- 최준혁 : 근데 혜원아 우리가 다른 날 관계 맺을 때도 내가 그렇게 팔을 잡고 손을 잡은 적 있었잖아, 혜원아.
- 유혜원 : 있었어. 있었어. 근데 내가 막 그렇게 울면서 하기 싫다고 안 했었잖아.
- 최준혁 : 그래, 혜원아, 그날 억지로 하려고 하고, 억지로 했던 거 미안해 혜원아. 그냥 나도 네가 그거를 ‘강간을 했다, 성폭행을 했다.’ 그렇게 그냥 말한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뭔가 말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,
- 유혜원 : 준혁아, 그럼 내가 성폭행이란 단어 쓰지 말고 다시 얘기해줘?
- 최준혁 : 아니야, 혜원아. 내가 그렇게...
- 유혜원 : 아니, 내가 얘기한 거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봐. 그러면, 응?
- 최준혁 : 아니야, 아니야, 혜원아.
- 유혜원 : 아니야, 들어봐, 준혁아 그러면. 호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내가 “싫다.”고 했고 그 전부터 호텔 잡는 것조차 되게 싫어 했어. 여기까지는 맞아?
- 최준혁 : 아니 싫다고 했어도 그날은 같이 들어갔잖아, 혜원아. 내가 뭐 억지로 끌고 간 건 아니었잖아, 혜원아.
- 유혜원 : 맞아, 아니...
- 최준혁 : 왜 그렇게까지 다,





- 유혜원 : 아니, 준혁아... 후...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흥분해? 궁지에 몰리니까,
- 최준혁 : 아니 흥분... 아니 혜원아, 아니 궁지에 몰여서 흥분하는게 아니야,
- 유혜원 : 듣고서 아닌게 있으면,
- 최준혁 : 그래, 그래, 알겠어. 얘기해. 혜원이 너 나보고 흥분한다고 얘기하지말고, 혜원아, 어, 얘기해. 혜원아.
- 유혜원 : 응. 나 천천히 얘기하고 있잖아.
- 최준혁 : 어, 얘기해 줘. 어.
- 유혜원 : 내가 호텔 예약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지? 근데 그날도 호텔에 가게 됐어. 근데 내가 분명히 들어가기 싫다고 얘기는 했어. 왜냐면 들어가면 너랑 자야 될 것 같았으니까. 그랬더니 네가 그냥 올라가서 다른 거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, 그렇지?
- 최준혁 : 어.
- 유혜원 : 그러고 나서 올라갔지 그리고 뭐 입고 있었어, 우리?
- 최준혁 : 옷까지는 기억이 안 나, 혜원아.
- 유혜원 : 우리 평소에도 너랑 가운 입고 거기서 TV 보고 막 이랬던 적 많아. 맞지? 그래서 그날도 가운 입고 있었어. 준혁아 나는 너 무 생생해. 가운을 입고 있었어, 우리 둘 다. 그리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뒹굴뒹굴하고 그냥 막 놀고 있었어, 쉬고 있었어. 근데 네가 또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분명히 내가 싫다고 했어. 진짜 싫다고 했어 나 만질 때부터. 싫다고 굉장히 여러 번 말했고, 근데 어쨌든 네가 내 옷을 이렇게 벌렸는데 가운에 내가



팔이 낀 상태였어, 그 상태로 내 팔을 올렸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오른쪽 팔로 내 왼쪽 팔을 누르고 반대쪽 손으로는 내 손목을 잡았었어. 웃은 기억 안 나도 이렇게 했던 건 기억나?

○ 최준혁 :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혜원이 너한테 삼입을 했다는 거야, 혜원아?

○ 유혜원 : 그다음에 팔은 좀 움직였던 것 같아.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어, 근데

○ 최준혁 :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... 어, 얘기를 해줘. 혜원아.

○ 유혜원 : 응.

○ 최준혁 : 어.

○ 유혜원 : 중간 과정까지는 뭐 네가 입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나도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. 준혁아. 근데 분명한 거는 네가 삼입을 한 거는 너도 그날 기억하지?

○ 최준혁 : 그래서 혜원아, 삼입을 하다가 네가 정말 싫다고 해서 내가 멈췄잖아, 혜원아.

○ 유혜원 : 그런데 그 삼입을 하기 전에 내가 너무 싫다고 울었잖아. 나운 거 기억 안 나, 준혁아? 그리고 내가 막 그렇게 힘을 줬는데 너 나 기흉 수술해가지고 팔 이렇게 막 짚거나 다리로 침대 걸지 못하면 못 일어나잖아 나.

○ 최준혁 : 응.

○ 유혜원 : 근데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른 때도 그래서 네가 나 못 움직이게 할 때는 그렇게 팔을 잡았잖아. 아니야?

- **최준혁** : 그래서 혜원아, 나도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멈췄잖아, 혜원아.
- **유혜원** : (한숨) 준혁아, 근데 나는 솔직히 너 멈춘 것도 생각 안 나고,
- **최준혁** : 아니야, 혜원아 근데 멈췄었어, 혜원아 그러고 나서.
- **유혜원** :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네가 멈춘 거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. 근데 어쨌든 나는 이미 너무 싫고 울고 있는 상태에서 네가 그렇게 삼입하고 움직여가지고 너무 무섭고, 울고 막 이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중간에 그래서 내가 막 옷을 입고 막 급하게 옷을 막 걸치고 나왔어. 근데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이건 내 기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줘 듣고서. 내가 막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너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옷을 막 걸쳤어 근데 내가 일단 그냥 막 나가 버렸어.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나가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, 나 빨리 옷 입고 신발 신고 네가 뭘 했는지까지는 내가 잘못 봤어.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막 나왔고 네가 그래서 나를 붙잡고 데려다 주려고 했는지 뭐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따라 나왔었어. 근데 내가 막 가가지고 먼저 택시를 타고 가버렸어. 네가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정확히. 여기까지 틀린 거 있어?
- **최준혁** : 그래서 혜원아,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했었잖아, 혜원아.
- **유혜원** :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행위를 놓고 사람들은 범죄라고 얘기를 한다고, 준혁아. 어? 그런데도 나는

네가 진짜 내 뒤에서 그런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너무 좋아해서 그냥 주침이 안 된 줄 알고 그거를 그냥 눈 감아줬었다고, 모르고 넘어간 거라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너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?

- 최준혁 : (정적)
- 유혜원 : 내가 말한 거 중에 틀린 거 있어 준혁아? 아까 내가 강간이라고 했던 거는 이 상황들을 그냥 짧게 얘기를 했던 것 뿐이고, 네가 그 단어가 싫다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야, 내가. 근데 이 상황에서 틀린 게 있었?
- 최준혁 : 아니, 혜원아,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얘기를 원가... 근데 나도 정말 내가 그렇게 억지로 했던 거 억지로 하려고 했던 거는 나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고 혜원아. 근데 정말 내가 너의 의사는 완전히 싸그리 무시한 채, 정말 내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거나 끝까지 하거나 막 그걸 밀어붙이거나 그런 적은 없어, 혜원아 정말.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의 얘기를 한 거야. 혜원아.
- 유혜원 : 근데 그날 그게 내 의사에 반한 게 아니면 도대체 뭐 나를 강제로 묶어놓고 끝까지 사정을 해야만 내 의사를 무시한 거야? 그날 나는 그것도 내 충분히 내 의사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했거든? 그래서 네가 그날 네가 아까 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걸 이해해서 미안하다고 한 줄 알았는데?
- 최준혁 : 아니야, 그런 것도 맞아, 혜원아, 어. 그리고 그건 내가 정말

미안하고 그렇게 했던 것도,

- 유혜원 : 그냥 “ 싫다 ” 고 하는 거는 진짜 그냥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거야. 그리고 막 좋은데 막 울면서 싫다고 하진 않아. 그리고 막 팔이 이렇게 막 저항하고 그러지 않아.
- 최준혁 : 알겠어, 혜원아. 그리고 혜원아, 영상이나 그런 거 말한 부분 있잖아, 혜원아.
- 유혜원 : 응.

- 끝 -



# 사 실 확 인 증 명 서

발급자격-국가공인 1급속기사

《자격번호 10-G2-000095》

신 청 인	의뢰처 (의뢰인)	유 혜 원
	담 당 자	개인정보유출방지에 의거_(기재안함)
사실 확인 내용	<p>신청인이 제시한 음성녹음파일 「전화 통화 녹음」을 청취하고, 녹음된 녹음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① 녹음일시· 장소· 대화자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것임 ② 명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은 “ *** ” 로 표기하였음 ③ 사무소의 간인은 십인의 속기녹취사무소 직인으로 대체함 ④ 내용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불필요한 어구 및 침삭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.</p> <p>※ 녹취록의 임의 위변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	
용도	경찰, 법원, 검찰 등 공공기관_(제 출 용)	

2022년 9월 6일

위 기록은 녹음 내용을  
상이 없이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,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십 인 의 속 기 녹 취 사 무 소 ( 공 증 필 )

